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계는 1년이 언도되었으나 정순이는 1년6개월의 형을 받았다. 그러나 11개월 후 형집행정지를 받아 나올 때는 같이 나왔다.

당시 서대문구치소 여사에는 우리 외에도 서울여대 김숙임, 숙대 석원정, 고대 이해자 등 20여 명이 있었다. 밤마다 '통방' 을 하면서 쌓은 우정은 지금도 변치 않고 있다. 바로 '긴급 조치9호' 가 준 선물이었다.

그때가 어떤 때였는데



박태경_ 이화여대 사회학과 75학번. 이대학보 기자, TBC-TV 프로듀서, KBS 심의위원(현)

매년 이화여대의 부활절 채플은 당국의 요주의 행사였다. 1978년 4월,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구호를 시작으로 하여 대강당 앞의 계단에는 수천 명의 학생들이 앉아서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한 시간쯤 흐른 후 누군가가 옆구리를 쿡 찌르며 한쪽 구석으로 몇 명을 불러냈다. 우리는 그날 시위를 주도했던 사회학과 4학년 최정순 빼들리기 작전을 시작했다. 대강당 계단에서 세 명의 친구들이 정순을 둘러싸고 슬슬 빠져나와 강당 뒤쪽의 학생회관 사이 길을 따라 이대부속초등학교로 가는 골목길로 나왔다. 지금은 그 사이에 국제교육관과 이화삼성교육 문화회관이 들어서서 위용을 자랑하고 있지만, 당시 그 사잇길은 주로 이대 교수들의 집이 있는 소박한 골목이었다.

그런데 정순을 데리고 나오는 길이 이상할 정도로 한가했다. 아직도 대강당에서는 시위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정순의 도피로는 쥐새끼 한 마리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했다. 정순을 데리고 나오는 길에서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았다.

골목에 도착한 우리들은 우선 정순의 안경을 벗기고 재킷도 다른 친구 것과 바꿔 입혔다. 모인 친구들의 주머니를 터니 한 3만원정도 나왔던 것 같다. 정순이는 이것을 도피자금으로

이대부속초등학교 정문 옆에서 택시를 타고 유유히 사라질 수 있었다.

최정순이 왜 이렇게 무사히 도피할 수 있었는지 미스터리가 밝혀진 것은 거의 20년만이다. 그 당시 서대문경찰서 형사들은 최정순 대신 2학년이던 과학교육과 77학번 박정옥을 잡아간 것이다. 형사들이 최정순과 박정옥을 혼동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을 잘 아는 친구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신들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두 사람이 닮은 데가 하나도 없었기에 절대 혼동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당시 최정순은 진해 출신으로 지하에서 운동하느라고 바빠 외모에 신경 쓸 틈이 없어 항상 바지차림으로 다녔다. 시위할 때도 그 흔한 시위복인 흰 블라우스, 검정스커트 한번 입은 것을 본 기억이 없다. 그래서 행색으로 볼때 위장취업을 해도 절대 여대생으로 의심받지 않을 분위기였다. 이에 비해 박정옥은 서울 을지로 출신으로 화려한 미모가 빛나고 있었다.

군이 들의 공통점을 찾자면 얼굴이 둥그랗다는 것, 안경을 썼다는 것, 붉은 색 계통의 재킷을 입고 있었다는 것, 대강당 채플 좌석이 과학교육과가 사회학과 옆에 있어서 계단에 나와 앉을 때도 사회학과 옆에 앉았다는 것뿐이다. 당시에는 대강당 건너편 건물에서 형사들이 시위장면을 사진촬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장비가 워낙 보잘 것 없어 잠깐 형사가 눈을 돌린 사이에 카메라 각도가 조금 돌아가서 최정순에서 박정옥으로 피사체가 바뀌었던 것 같다.

나중에 최정순과 박정옥은 만나서 얼굴을 맞대보고 박장대소했다. 아무리 쳐다봐도 둘은 서로의 거울이 될 수 없었다. 최정순은 박정옥에게 20년 만에 한턱을 냈다. 그 당시에 둘이 만났으면 박정옥이 분기탱천했을지도 모른다. 대신 끌려가서 고생한 것도 억울한데 착각도 유분수지 나 같은 미모를 저런 분위기와 헷갈리다니….

서대문서 형사들은 박정옥이 자기 사진이 붙은 학생증을 보여주며 최정순이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믿지 않고 신분을 위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급기야 “이 년이 이제 공문서위조까지 해.” 라고 말해 하마터면 박정옥은 정말 생사람 잡힐 뻔했다.

그리고 서대문서에는 유치장을 감시하는 망루가 있었는데, 망루에서 유치장을 지키던 형사는 “나도 4.19 때 데모해 봤는데 너희들 요새는 그러면 안돼. 그때 비하면 요즘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데”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장훈시를 늘어놓기도 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하면 한편의 코미디 같지만 당시를 회상하면 등골이 오싹해질 일이다. 77년 봄

채플 때 독재에 항의하는 검은 리본이 들었을 때 나는 오로지 학보사 기자라는 이유로 아무 것도 한 일 없이 대현파출소에 불려간 적이 있다. 단지 3시간 만에 자술서 쓰고 풀러냈지만 무지하게 무서웠다. 그때는 숨어서 학생운동을 했기 때문에 시위가 일어나면 드러나 있는 인물들-학생회간부, 서클대표, 학보사기자 등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학보사의 또 다른 친구는 불법유인물을 갖고 있다가 적발되어 가택수색을 당하고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요주의 학생으로 찍혀, 월 1회의 학과장 면담과 동향보고서 제출, 그리고 수시로 집으로 찾아오는 동네경찰서 정보과 형사의 동향파악이 이어지는 의례적인 순서였다.

나중엔 무섭기보다 귀찮아서 혼났다. 재수 없으면 아무 공안사건이나 굴비엮듯이 엮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형사가 올 때마다 자장면 시켜 먹이고, 용돈 쥐어주며, 안심시켜 보냈다고 한다.

긴급조치9호 시대는 학원사찰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내가 학보사 기자로 있던 75년부터 78년까지 이대학보사에는 수시로 기관원들이 드나들었다. 뿐만 아니라 학보를 제작하던 조선일보 외간부에게까지 기관원이 드나들며 검열을 해 마지막 조판 과정에서 기사를 수정, 삭제하기도 했고 여러 번 배포 금지를 당하기도 했다. 학생기자클럽인 ‘상록탑’은 특히 이들의 단골메뉴로 조판 직전 새로 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우리가 울분을 터뜨릴 수 있는 장소는 남의 눈에 안 띄는 조선일보 옥상뿐이었다.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서대문경찰서의 정보과 형사는 드러내놓고 학보사를 들락거렸다. 학생기자들의 항의에는 눈 하나 깜박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분위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 당시의 세 기관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했던 것 같았다. 중정 요원은 학력도 대졸이고 자금도 풍족했다. 미스터 A는 얼굴에 기름이 찰찰 흐르고 옷차림도 깨끗하고 그때는 귀했던 자가용차를 몰고 다녔다. 이대학보 창간기념일에는 와인을 사들고 오는 등, 학보사 행사 때마다 축하를 빙자해 감시를 하러 오기도 했다. 후임으로 왔던 미스터 B는 나이가 젊은 데다가 사프하게 생겨 겉으로는 영화에 나오는 비밀요원 분위기였다.

보안사의 미스터 C는 학보사에 들어올 때마다 토끼같이 둥그란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티를 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들어올때마다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 없었는데,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악취가 심해서였다. 아마 군인 신분이어서 목욕이나 빨래를 자

주 하지 못해서 그런 걸로 생각했다.

가끔 들렸던 경찰서 정보과 형사 미스터 D는 눈은 부리부리했지만, 다른 기관원에 비해 촌스럽고 느려 보여서 분위기로는 도저히 정보를 캐내지 못할 것 같았다.

미스터 A는 두 얼굴의 사나이였다. 항상 회유인지 협박인지 모를 모호한 발언을 하며 교묘하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대학가 동향수집과 함께 학교 내 여론주도층에 대한 주의 환기가 임무였던 것 같다. 미스터 A의 여대생들에 대한 1차 협박은 “시집 가서 미국갈 때 신원 조회 걸러 후회하지 말고(당시에는 외국 한번 가려면 보안시령부군인이 가정방문을 하여 엄격하게 신원조회를 했다. 우리 오빠가 80년에 미국 유학을 가서 나도 그 광경을 목격했다. 학교 때 데모 안 했어요? 가족 중에 월북자 없나요? 심지어, 아버지 직업은? 등 사상점검과 함께 온갖 사생활을 다 캐물었다) 데모하지 말고 암전히 지내라”는 말이었다. 그와 함께 중정에 멋진 청년들이 많으니 소개시켜 주겠다는 말도 항상 덧붙여, 우리는 속으로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미스터 A는 우리를 감시하는 한편 회유하려고 무던히도 애썼다. 학보사에 출입하지 말라는 기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그는 끈질기게 ‘대화 인지 ‘면담’ 인지를 요구했다. 협박성 요청을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다 결국 우리는 이대 앞에서 가장 비싼 중국음식점인 낙궁으로 불려 갔다. 열심히 유신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척하며 우리를 협박하려고 했지만, 다행히 옆 자리에서 하도 떠들어 주어서 우리도 농담따먹기를 하며 그가 말할 틈을 주지 않고 먹고 마시고 온 적도 있다. 그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설득하려던 그가 옆 자리에서 하도 떠들어서 소기의 목적달성이 어려워지자 확 노력하는 실눈으로 순식간에 돌변하는 모습이다. 전형적인 공작원의 이중적 표정인 듯해서 잘 먹다가 소화기관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다.

한번은 76년 어린이날 학보사의 다른 기자와 함께 중곡동에 있는 박형규 목사댁으로 취재를 간 적이 있었다. 바로 그 다음날 미스터 A는 역시 모호한 웃음과 유들유들한 표정으로 학보사에 나타나 같이 갔던 친구에게 왜 박 목사를 만나러 갔냐며 슬슬 유도심문과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같이 갔던 나는 뇌두고 또 다른 기자에게 물어보는 것이었다. 당시 박 목사댁 앞에는 항상 형사가 지키고 일일이 오가는 사람들을 체크하고 있었던 것 같

은데, 이름 대신 인상착의로 정보보고가 들어갔던 것 같다. 그 친구도 나처럼 단발머리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학보사와 박 목사 댁의 전화도 도청되고 있었던 것 같다. 당시 박 목사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간통죄밖에 없다.”고 하여 우리를 웃기기도 했다.

돌이켜 보면 사찰, 도청 같은 공작은 은근한 심리적 억압이라는 부차적 효과도 보았던 것 같다. 투표소 앞에서 총을 차고 군인들이 어슬렁거리면 누가 뭐라고 말 한마디가 없고, 지금처럼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 행동을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지레 겁을 먹고 알아서 기게 되는, 나치의 공포정치를 연상케 하는 시대였다.

내가 뭘 했다고 긴급조치9호에 대해 글을 쓰나? 나는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그 당시 대학생치고 데모 한번 안 해본 사람도 없는데... 그러나 나도 쓰기로 했다. 글을 쓸까말까 망설이며 여러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기억들을 하나씩 꿰어맞추다 보니 정말 안타까웠다. 대부분 세세한 정황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기록을 남겨둘걸. 한 친구가 “야, 그때 이런 거 써왔으면, 우린 제대로 못살아 남았어. 그때가 어떤 시절인데.”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말이다.

바로 이거였다. 우리 자신이 겪은 일들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자격으로 신세대들에게 역사를 모른다고 탓할 수 있으랴. 역사라 치기에는 얼마 안 되는 기간이 흘렀지만 망각은 너무나 빨랐다.